

중학교 가정과교사의 가족가치관과 세 행동체계별 가족생활 영역 목표 요구도

오 윤 학* · 채 정 현**

신원중학교교사* ·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과 부교수**

Middle School Home Economics Teachers' Family Value and Needs on Learning Objectives of Family Life Area according to the Three Systems of Action

Oh, Yun Hee* · Chae, Jung Hyun**

Shinwon Middle School Teache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ssociate Professor**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middle school Home Economics teachers' family value and needs on learning objectives of family life area, an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Data was collected from the survey mailed to the teachers responsible for family life area in 「Technology/Home Economics」 in middle schools in Korea. The collected 312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final analysis. SPSS/WIN program was used for calculating average, standard deviation, percentage, t-test, ANOVA with post-verification scheffe., and correlation analysis.

Followings are the summary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ly, the family value of middle school Home Economics teachers was relatively modern. They had very modern sense of value in all of the sub-areas such as sense of value on marriage, on gender role, on children, on filial love, and familism.

Secondly, regarding needs on family life area of learning objects of Home Economics teachers, the requirement on emancipatory system of action was the highest, technical system of action was the next, and Communicative System of Action was the lowest.

Thirdl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eeds of learning objects of family life area and the family value, the needs of technical and interpretive behavioral system had few things to do with the family value. However, the needs on learning object needs of emancipatory system of action was higher as the family value was modern. The trend in the relationship with needs was same in all the sub-areas such as sense of value on marriage, on gender role, on children, on filial love, and familism. However, the family value and the achievement level of family life area goals did not show significant correlation.

Fourthly, regarding the family value and the needs on learning objectives of family life area of middle school Home Economics teachers, those who were female, who had certificates for Home Economics Teaching, who were young and who had less experiences in teaching had more modern family value and required more learning objectives in emancipatory system of action.

Considering the results of the study, it is needed to emphasize the learning objects of emancipatory system of action in family life education by inducing consensus on the proposition that Home Economics subject is a critical and practical subject. To do this, it is needed to provide Home Economics teachers with emancipatory interest and mature family value through educating and refreshing them. It is desirable to separate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so that certificated Home Economics teachers could teach family life area. In that case they can teach the subject in the point of practical criticism. If the area is to be taught by other subject teachers, there should be enough understanding on the philosophy and nature of Home Economics subject beforehand.

주제어(Key Words) : 가족생활(family life), 세 행동체계(three systems of action), 하버마스(Habermas), 목표(objectives), 요구도(needs), 가정교육(Home Economics Education)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우리 나라의 가족가치관은 유교적 이념에 기반을 둔 전통사회에 비하여 현저하게 변화하였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생활 속에는 전통적인 요소가 온존하고 있다. 가족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은 근대적 가치관과 조화를 이루는 경우도 있지만, 사회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보수성을 견지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삶과 사회 발전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유영주 외, 2000; 이효재 외, 1995). 왜냐하면 가족의 규모, 형태, 기능, 가족관계는 급격하게 현대화되어 가는데 비해 아직도 가족생활을 규정하는 규범적 가치관이 전통적 가족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가족의 욕구나 현실을 왜곡함에도 불구하고 제도

적 기반을 가지고 존속하여 개인의 의식이나 무의식에 남아 가족의 삶을 규정하도록 이데올로기화되었기 때문이다(문소정, 1995). 이에 따라 세대간, 개인간의 가족가치관의 차이는 점점 커지고 있으며, 현실과 유리된 모순을 안게 되었다. 가족학의 연구들은 가족가치관이 가정생활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며, 가족가치관의 차이와 모순이 가족 갈등을 일으키고 가족원을 불행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김송애, 1991; 한은주·김태현, 1994; 이미숙, 1997).

최근 가정과교육은 의·식·주 위주의 지식과 기능을 전수하는 데서 탈피하여 가족의 일원인 학습자들이 의식적·무의식적으로 형성한 부정적인 가치관(이데올로기)을 비판하여 자기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가정교육학을 실천비판과학으로 가정(assume)하는 데 그 배경이 있다. Brown(1980)은 가

정교육학에서의 행동은 Habermas(1971)가 말한 기술적 행동, 해석적 행동, 해방적 행동 모두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 세 가지 행동체계가 가정과교육 목표 구성에 기초가 된다고 하였다. 기술적 행동이란 도구를 사용하여 물건을 제작하고 자연과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환경을 통제하는 행동이다. 해석적 행동은 공동체의 일원이 상호 주관적으로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행동이다. 해방적 행동이란 공동체 의식 속에서 이성적으로 따지지 않고 옳다고 믿는 기존의 가치관이나 인습 및 그릇된 전통을 비판하여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실천비판 과학의 관점에서는 세 행동체계를 모두 포함하나 이 중 해방적 행동을 더욱 강조한다.

실천비판 교과와 관점에서는 다양한 가치관을 비판하나 무엇보다 구체적인 삶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족가치관에 대한 성찰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관점에서 가족을 보는 중요한 견해 중의 하나는 가족이 사회적·정치적 힘이라는 것이다. 즉 가족이 사회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가족원의 주도적이고 자율적인 행동에 의해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의미이다(Brown, 1980). 이를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족가치관에 적용한다면, 성차별이나 가부장제도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비판하고 이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고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채정현, 2001). 가정과교육 목표 요구도와 관련된 연구의 결과(유화림, 1996; 채정현, 1996)들도 종래의 지배적이었던 기술적 관점에서 벗어나 해석적, 해방적 목표를 추구해야 하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가정과교사들의 가치관이 고정적이거나 그러한 교육 목표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이나 행동이 없다면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교사는 교육과정을 결정짓는 한 요소(Brown, 1980)로서 학생들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 주는 역할을 한다. 학생에게 가르쳐야 할 것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일은 바로 목표의 설정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치관은 개인의 모든 행동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대상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기준이 되므로, 교사의 가치관은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그 요구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가정교과는 가족생활 영역의 내용과 대상이 가족이기에 가정과교사의 가족에 관한 가치관

은 가족생활 영역의 교육목표 설정과 평가의 기준이 될 것이다.

가정과교사들의 세 행동체계와 관련된 목표에 대한 요구도는 가족생활 영역의 목표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정보원이 될 것이다. 그런데, 가정과교육의 요구도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교육목표와 내용에 관한 요구도 파악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요구도를 교사의 잠재적 특성인 가치관과 연관시켜 파악해 본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로는 교사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은 파악할 수 있으나, 교사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교육목표를 평가하며, 교사가 지닌 가치관이 목표의 요구도를 평가하는 교육적 행동과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정과교사의 가족가치관은 어떠한지, 가족과 관련된 내용을 위주로 하는 가족생활 영역의 세 행동체계와 관련된 목표에 대한 요구도는 어떠한지, 그리고 가족가치관과 세 행동체계별 목표에 대한 요구도와의 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서 가정과교사의 가족가치관의 정도를 파악하고 세 행동체계와 관련된 가족생활 영역의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연구 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가정과교사의 가족가치관의 일반적 경향과, 일반적 특성에 따라 가족가치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다.

둘째, 중학교 가정과교사의 세 행동체계별 가족생활 영역 목표의 요구도를 알아보고, 일반적 특성에 따라 요구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셋째, 중학교 가정과교사의 가족가치관과 세 행동체계별 가족생활 영역 목표의 요구도와의 관계를 알아본다.

II. 관련문헌고찰

1. 가족가치관

가치관은 여러 가지 인간문제에 관하여 바람직한 것과 해야 할 것에 관한 일반적인 생각 또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가치관은 인간 행동의 이면에

작용하는 철학으로, 한 개인이나 집단에 내재하여 일률적이고 체계적인 개념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의 기본적인 가치 지향은 뿌리 깊이 박혀 있고, 주로 무의식적이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모든 행위 분야에서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의 형식에 영향을 미친다(한남제, 1989). 가치관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집단의 특성일 수도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한 사회집단 또는 한 국가의 가치관이란 그 사회의 성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집결체라고 볼 수 있다. 한 사회의 가치관은 이러한 한 때의 평면적인 총화로써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집단의 역사적인 경험의 축적과 그 성원들이 이루는 사회적 관련 및 구조 여하에도 크게 관계되어 있다(유영주 외, 2000).

한국인의 가치관에 대하여 연구한 홍승직(1969)과 김인자·황응연(1974)은 가치관을 가족가치관, 경제가치관, 정치가치관, 사회가치관, 종교가치관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대부분의 가치관 연구에서 가족가치관은 중요한 영역을 차지한다. 한남제(1989)는 가족가치관을 사회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에 관련된 일체의 가치관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하였고, 박혜인(1990)은 가족가치관은 가족에 관하여 바람직성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화되고 조직화된 관념체계로서 가족에 관한 포괄적인 태도라고 하였으며, 유영주 외(2000)는 가족가치관을 가족에 대해 혹은 가족생활에 대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의식이 라고 했다. 또한 유계숙·유영주(2002)는 개인이 가족과 관련된 삶의 방식을 판단하고 선택하는데 주체적인 원리로 작용하는 지속적인 신념체계로 정의했다.

이상의 가족가치관에 관한 여러 정의를 종합하면, 사용된 용어는 다르지만 그 의미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이 가족에 관해 바람직성 여부를 판단하는 일체의 의식을 의미한다. 가족가치관을 가족에 관해 바람직성 여부를 판단하는 일체의 의식으로 정의한다면, 어떠한 가족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져 왔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적 가치관이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어 왔으며, 특히 가족생활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했다. 유교적 가치관은 가족생활의 규범과 가족성원간 인간관계의 성격을 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어 왔다. 유교적 가치관이 가족생활의 지침으로 작용하면

서 가족가치관에 지배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한남제, 1989). 홍승직(1969)도 한국인의 가족가치관에 대한 고찰을 통해, 유교적 전통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유교적 가치관이란 부모에 대한 효와 조상숭배라는 이념이 지배하는 가부장적 성격을 가진 것인데, 이런 전통적·유교적 가족에서는 자녀의 결혼문제도 가문을 중심으로 하여 고려되며, 배우자의 선택도 자녀 당사자보다는 부모, 특히 아버지가 결정적인 발언권을 갖는다.

개항 이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은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하여 서구적인 가족원리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가족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났다. 하나는 서구 세계와의 접촉을 통해 우리의 사회구조가 변동함으로써 야기된 제도적 측면의 근대화이고, 다른 하나는 서구의 근대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일어난 의식의 근대화이다. 전자는 우리나라가 과거의 자급자족적인 농경사회로부터 근대적인 산업국가로 변모하면서, 가족집단이 사회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일어난 제도적·법제적 변화이다. 반면에 후자는 주로 매스 커뮤니케이션 및 학교 교육을 통하여 서구의 남녀평등관·개인주의 사상 등이 전파되면서 일어난 가족의식의 변화이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특히 국권상실로 인한 일체의 강점시기와 광복 이후에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가족이 전통사회에 비하여 현저하게 변모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가족생활 속에는 전통적인 요소가 온존하여 서구적인 가족원리와 공존하고 있다(최재석, 1975; 김태길, 1986). 이 양자는 조화를 이루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크게 갈등하면서 사회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의식은 근대적인 가족원리에 접근하면서도 제도는 여전히 전통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반대인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유영주 외, 2000).

가족이 전통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국가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지체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는 가족제도의 변화와 사회의 다른 제도들의 변화간에 나타나는 지체현상이고, 다른 하나는 가족자체 내의 구조와 가치관간에 존재하는 지체현상이다(이동원, 1987). 사

회의 급격한 변화에 비해 가족의 구조와 가치관은 천천히 변해, 전반적인 사회변화와 가족의 변화간에 지체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가족이 이러한 사회구조의 변화에 적절히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이혼율의 증가, 청소년 비행, 가족성원들간의 세대 차 및 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가족 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구조와 의식간에 불일치가 존재한다. 가족의 구조적 측면은 부부 중심의 핵가족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가치관의 측면에서는 아직도 전통적인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가족의 변화는 불가피하게 많은 가족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이기숙, 1993). 따라서 한국 가족은 가치관과 관련하여 발전적 방향을 지향해야 하는데, 첫째, 가부장제의 극복, 둘째, 편의주의적 가족가치관을 포함한 가치관 혼란현상의 극복, 셋째, 다양한 가족가치관 수용의 세 단계로 요약되며, 다양한 가족가치관이 존재하는 가운데에서도 가족가치관 변화의 기본 방향이 남녀평등을 포함한 가족원의 평등과 양계적인 방향이어야 한다(유영주 외, 2000).

위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 현대의 가족가치관은 전통성과 근대성의 혼재 속에 있으므로 가치관의 재정립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교과는 교육을 통해 가족을 억압해 왔던 부정적인 가족가치관을 비판하고 바람직한 가족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반성과 비판을 통한 바람직한 가족가치관을 정립하는 일이 가정과교사에게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가정과교육에서 세 행동체계와 관련된 선행연구

가정과에서 세 가지 행동체계를 연관시킨 선행연구로는 Knight(1989), 채정현(1996), 유화립(1996), 유난숙(1997), 최정란·유태명(1998), 박명주·유태명(2001)의 연구가 있다. Knight(1989)는 가정학의 한 분야인 영양학이 전문적이고 학문적으로 발달해 왔음에도 가정학의 사명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학부 프로그램에 가정학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행동체계를 골고루 적용하고 있는지 가정교육 교수와 영양학 교수를 대상으로 조사 연구하였다. 질문지는 세 가

지 행동체계 각각의 목적, 지식에 대한 관점, 교수-학습 전략, 평가 방법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그 결과는 전체적으로 학부 프로그램에 세 가지 행동체계 중 기술적 행동체계를 더 많이 적용하고 있었다. 이 연구 결과를 근거로 가정교육 교수와 영양학 교수들이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문제를 협력하여 다루기 위해서, 연구자는 세 가지 행동체계와 가정학의 철학과 사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워크샵이나 세미나를 가질 것을 제안했다.

채정현(1996), 유화립(1996), 유난숙(1997)은 중·고등학교 가정과교육목표를 세 가지 행동체계에 따라 분류하여 주로 가정과교사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요구 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해방적 행동체계에 관련된 목표가 가정과교육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정란·유태명(1998)은 남녀중학생의 가정교과 교육내용과 관련된 가정생활 행동체계에서의 실천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해석적 행동 영역에서의 실천도가 가장 낮고 해방적 행동 영역에서의 실천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주·유태명(2001)은 기술적, 해석적, 해방적 관점으로 구분하여 가정과교사와 기술과 교사의 교육과정 관점에 대한 성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가장 선호하는 관점은 해석적 관점이었으며 그 다음이 해방적 관점, 기술적 관점의 순이었다. 가정 담당 교사는 해방적 교육과정의 관점에 가장 높은 선호를 하였다. 그러나 교직경력 이외의 전공을 비롯한 어떤 변인도 가정과교사의 교육과정 관점에 상대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주지 않았고 세 행동체계별 평균 점수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서로 다른 교육과정 관점에 대한 차이를 잘 알지 못하며 뚜렷한 교육과정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임을 지적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의 중학교에 재직하는 가정과 교사이다. 한국교육명부(2001)에 제시된 전국의 중학교

2,770개를 제시된 순서에 따라 체계적 무선 표집 방법으로 599개교를 선정하여, 선정된 중학교에서 가정교과를 지도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의 '나와 가족의 이해' 영역을 현재 지도하고 있거나, 지도한 경험이 있는 교사가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법으로는 질문지를 통한 우편조사법을 실시하였다. 2002년 9월 19일에 질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10월 12일까지 회수하였다. 표집된 599개 중학교의 학급 수를 고려하여, 25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1부, 25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2부 씩 총 903부의 질문지를 발송하여 245개교에서 343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질문지 중 부실 기재된 13부와 일률적인 응답을 한 18부를 제외하고 312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조사 도구

본 연구에 사용한 조사도구는 가족가치관에 관한 질문지와 가족생활 영역 목표 요구도에 관한 질문지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 도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족 가치관에 관한 조사 도구는 김경신(1998)이 3세대를 대상으로 가족가치관을 분석하기 위하여 작성한 질문지를 연구자가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가족가치관 조사도구는 결혼관, 성역할관, 자녀관, 부양 및 효의식, 가족주의 가치관의 5개 하위영역으로 나뉘어져 총 6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가치관의 전체 경향이나 영역별 경향을 일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들(이동원, 1987; 김일명, 1989; 강숙경·고정자, 1996; 김경신, 1998)을 참고하여 가치관의 전통성과 근대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하며, 중간점인 3점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은 경우는 근대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높은 경우는 전통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가족생활 영역 목표 요구도에 관한 조사 도구는 연구자가 우리나라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미국 오하이오주의 '일과 가족생활(Work and

Family Life)' 교육과정 가이드(1993)와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실과·기술과·가정과의 교육목표와 내용기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2)을 분석하여 목표를 선정하였다. 목표 선정 후에 관련 문헌(Habermas, 1971; 유화림, 1996; 채정현, 1996; 유난숙, 1997; 채정현, 1998; 조태훈, 2001; 채정현, 2001)을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기술적·해석적·해방적 행동체계와 관련된 목표로 분류하였으며 총 5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도록 하였다.

제작된 조사도구는 가정교육 전문가 1인, 가정교사 7인, 국어과 교사 3인의 검토를 통해 내용 타당도를 검증 받고,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였다. 예비조사는 본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현장의 중학교 가정교사 30명을 대상으로 2002년 9월 6일부터 9월 14일까지 실시하였다.

가족가치관 도구 전체의 Cronbach's Alpha(α) 계수가 .92이며, 각 하위영역별로는 모두 .60이상으로 나타났다. 가족생활 영역 목표 요구도 도구는 전체 중요도, 성취도, 요구도의 α 계수가 각각 .96, .96, .93으로 모두 .90이상이며, 세 행동체계별 신뢰도 역시 모두 .80이상으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ver7.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라 평균, 표준편차, t-test와 ANOVA, 그리고 Pearson 상관관계를 실시하였다.

각 목표별 요구도를 알아보기 위해 인지 요구 조사 방법 중의 하나인 Lave와 Root(1978)의 모형과 Borich(1980)의 모형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즉, 교육목표의 요구도를 결정하기 위한 세 단계인 교육목표 진술, 반영 차이점수(discrepancy score) 계산, 요구하는 교육내용의 순위 결정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요구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중요도					성취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전혀 성취되지 않았다	별로 성취되지 않았다	보통이다	다소성취되었다	많이 성취되었다
1	2	3	4	⑤	1	2	③	4	5

5-3=2

(성취차이)

- 1) 각 문항의 중요도 평균을 구한다.
- 2) 각 문항별로 중요도에서 성취도를 뺀 차이점수를 계산한다.
- 3) 차이점수에 각 문항의 중요도 평균을 곱하여 요구도를 산출한다. 점수가 높은 것부터 내림차순으로 요구도 순위를 정한다.

세 행동체계별 요구도를 알아보기 위해 각 요구도를 세 행동체계별로 평균점수를 구하여 행동체계별 순위를 알아 보았다. 행동체계별로 구분된 각 문항의 요구도를 합산하여 문항수로 나눈 값이 행동체계별 요구도의 평균값이다.

IV. 결과 및 해석

1. 중학교 가정과교사의 가족가치관

중학교 가정과교사의 가족가치관의 일반적 경향은 <표 1>과 같다. 가족가치관 전체의 경향과 각각의 하위영역인 결혼관, 성역할관, 자녀관, 부양 및 효의식, 가족주의 가치관이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족가치관 전체와 하위영역별 평균점수를 산출하였다.

먼저 가족가치관의 전체 평균 점수는 2.51로, 중간점인 3점을 기준으로 3점 이상을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것으로, 3점 미만을 근대적인 가치관을 가진 것으로 볼 때(이동원, 1987; 김일명, 1989; 강숙경·고정자, 1996; 김경신, 1998), 중학교 가정과교사는 근대적인 가족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측정도구와 비슷한 도구를 사용한 김경신(1998)의 연구에서 나타난 중년세대(3.14), 청소년세

대(2.58)의 평균 점수보다 낮았고, 조소연(2001)의 연구에서 나타난 아버지(3.23), 어머니(2.96), 자녀(2.64)보다 더 낮은 평균 점수로서, 중학교 가정과교사의 가족가치관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더 근대적인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가족가치관 변화의 기본 방향이 가부장적 요소를 극복하고 가족원의 평등을 지향해야 함(유영주 외, 2000)을 고려하면, 가정과교사의 가족가치관이 근대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가정과교육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를 가정과교사 교육이 근대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여성인 경우, 교육수준이 대졸 이상인 경우, 수입이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가족가치관 점수에서 근대적인 경향을 나타낸 김경신(1998)의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가정과교사의 대부분이 여성이며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이고 맞벌이인 경우가 많아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을 것으로 추측되는 점 등이 가족가치관 점수에 영향을 주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가치관의 각 하위영역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결혼관 2.64, 성역할관 2.10, 자녀관 2.34, 부양 및 효 의식 2.38, 가족주의가치관 2.79로서 다섯 가지 하위영역 모두 3점 이하의 평균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관, 성역할관, 자녀관, 부양 및 효의식, 가족주의 가치관 모두 비교적 근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중 성역할관의 점수가 가장 낮아 다섯 가지의 하위영역 중 가장 근대적인 경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소연(200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그 다음

으로 자녀관, 부양 및 효의식, 결혼관의 순으로 평균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가족주의 가치관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 다른 하위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근대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선행 연구들(김규원, 1995; 김경신, 1998; 신수진, 1999; 조소연, 2001)에서 가족주의 가치관이 다른 하위영역에 비해 비교적 전통적인 성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같은 결과이다.

대부분(21명 중 18명)이 남성인 데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력, 종교, 가족형태,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가족가치관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학력이 낮을수록, 불교인 경우, 확대가족인 경우, 장남인 경우 전통적인 가치관을 보인다는 선행연구(김윤, 1983; 이연주, 1984; 김일명, 1989; 옥선화, 1989)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대학원 교육이 가정과교사의 가족가치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표 1〉 가족가치관의 일반적 경향

하위영역	M	SD
결혼관	2.64	.38
성역할관	2.10	.54
자녀관	2.34	.44
부양 및 효의식	2.38	.45
가족주의 가치관	2.79	.42
전체(가족가치관)	2.51	.32

일반적 특성에 따라 전체 가족가치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연령($F=9.74, p<.001$), 성별($t=-5.59, p<.001$), 교직경력($F=6.42, p<.001$), 전공자격($t=-5.66, p<.001$)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이 40세 미만이거나 교직경력이 20년 미만인 교사들 간에는 연령과 교직경력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연령이 45세 이상인 교사는 40세 미만인 교사에 비해 전통적인 경향을 보였고, 교직경력에 있어서도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가 20년 미만인 교사에 비해 전통적인 경향을 보였다(표 2 참조).

성별에 있어서는 여교사인 경우에 남교사의 가족가치관과 차이를 나타내 더 근대적인 경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변인은 가족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중 하나로서 선행연구들(이동원, 1987; 양명숙, 1996)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결과이다. 전공자격에 따라서도 차이를 나타내 가정과 자격을 소지한 교사가 가정과 이외의 자격을 소지한 교사에 비해 근대적인 경향을 보였으나, 이는 가정과 이외의 자격을 소지한 교사의

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하위영역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다.

결혼관은 연령($F=10.22, p<.001$), 성별($t=-3.90, p<.001$), 교직경력($F=7.68, p<.001$), 전공자격($t=-4.43, p<.001$)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또한 결혼여부($t=2.03, p<.05$),와 종교($F=3.69, p<.05$)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미혼 교사가 기혼 교사에 비해 더 근대적 경향을 나타냈고, 기독교인 교사가 종교가 없는 교사에 비해 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관에서도 연령($F=9.53, p<.001$), 성별($t=-5.69, p<.001$), 교직경력($F=5.85, p<.01$), 전공자격($t=-5.94, p<.001$)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다른 하위영역에 비해 성별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관에서도 연령($F=6.13, p<.001$), 성별($t=-3.76, p<.001$), 교직경력($F=3.28, p<.05$), 전공자격($t=-3.03, p<.01$)에 따른 차이를 보였으나, 그 외 다른 변인에 따라서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가치관

(N = 312)

구 분	N	가족 가치관		결혼관		성역할관		자녀관		부양 및 효의식		가족주의 가치관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연령	35세 미만	56	2.41	.35	2.49	.39	1.94	.51	2.20	.45	2.38	.43	2.66	.44
	35 - 39세	89	2.43	.29	2.54	.33	1.96	.49	2.25	.38	2.32	.44	2.74	.43
	40 - 44세	95	2.55	.33	2.68	.38	2.15	.50	2.42	.47	2.41	.50	2.78	.41
	45세 이상	72	2.65	.28	2.80	.36	2.34	.57	2.45	.42	2.43	.39	2.97	.36
	F		9.74***		10.22***		9.53***		6.13***		1.02		7.08***	
성별	여	294	2.49	.31	2.62	.37	2.06	.50	2.32	.43	2.36	.44	2.77	.41
	남	18	2.90	.33	2.97	.37	2.77	.66	2.71	.51	2.75	.35	3.18	.38
	t		-5.59***		-3.90***		-5.69***		-3.76***		-3.70***		-4.13***	
교직경력	10년 미만	66	2.42	.37	2.52	.41	1.98	.55	2.24	.44	2.34	.48	2.66	.46
	10-15년	73	2.47	.32	2.62	.34	1.99	.51	2.27	.43	2.36	.43	2.78	.44
	15-20년	80	2.50	.32	2.59	.39	2.11	.52	2.38	.44	2.36	.48	2.78	.41
	20년 이상	93	2.62	.27	2.78	.34	2.28	.52	2.43	.44	2.45	.41	2.91	.37
	F		6.42***		7.68***		5.85**		3.28*		.96		4.56**	
전공자력	가정	291	2.48	.31	2.61	.37	2.06	.50	2.32	.44	2.36	.44	2.77	.41
	기타	21	2.88	.28	2.98	.28	2.74	.61	2.62	.45	2.73	.33	3.16	.43
	t		-5.66***		-4.43***		-5.94***		-3.03**		-3.80***		-4.23***	
학력	대졸	218	2.50	.31	2.62	.37	2.11	.51	2.32	.42	2.35	.42	2.80	.40
	대학원 재학	41	2.50	.39	2.62	.43	2.10	.60	2.33	.51	2.44	.26	2.73	.47
	대학원 졸업	53	2.56	.35	2.71	.37	2.09	.60	2.41	.46	2.45	.52	2.81	.46
	F		.64		1.17		.30		.82		1.39		.53	
결혼여부	기혼	276	2.51	.33	2.66	.40	2.12	.54	2.35	.45	2.35	.45	2.79	.43
	미혼	36	2.49	.28	2.52	.40	1.96	.47	2.29	.40	2.59	.37	2.79	.36
	t		.36		2.03*		1.75		.66		-3.11**		-.01	
종교	기독교	86	2.50	.32	2.72	.36	2.12	.58	2.33	.45	2.29	.44	2.73	.39
	천주교	51	2.58	.34	2.71	.34	2.23	.56	2.38	.51	2.40	.47	2.82	.43
	불교	66	2.52	.30	2.59	.40	2.20	.51	2.36	.38	2.43	.45	2.81	.38
	없음	109	2.49	.34	2.57	.38	2.02	.50	2.32	.44	2.41	.43	2.81	.47
	F		.92		3.69*		1.93		.29		1.68		.75	
가족형태	핵가족	257	2.52	.33	2.65	.41	2.10	.53	2.35	.44	2.40	.45	2.79	.42
	확대가족	55	2.48	.32	2.63	.36	2.12	.57	2.28	.46	2.31	.44	2.78	.43
	t		.77		.24		.36		-.24		1.12		1.28	
출생순위	말이	108	2.55	.31	2.67	.37	2.18	.54	2.40	.44	2.39	.42	2.86	.40
	중간	145	2.51	.35	2.63	.38	2.09	.38	2.32	.47	2.37	.47	2.79	.44
	막내	59	2.45	.28	2.59	.39	1.99	.39	2.27	.35	2.40	.43	2.68	.39
	F		2.13		.74		2.65		1.72		.16		3.57*	

*** p<.001 **p<.01 *p<.05

부양 및 효의식에 있어서는 성별($t=-3.70, p<.001$)과 전공자격($t=-3.80, p<.001$)에 따라서는 다른 하위영역과 마찬가지로 차이를 보였으나, 연령과 교직경력에 따라 효 및 부양의식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효에 대해 전통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김연주(1984)의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또 결혼관에서 미혼인 교사가 더 근대적이었던 것과는 달리 결혼여부($t=-3.11, p<.01$)에 따라 미혼인 교사가 기혼인 교사에 비해 전통적 가치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혼 자녀의 경우 부모 세대보다 부양 및 효의식에 대하여 더 전통적인 경향을 나타낸 조소연(2001)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가족주의 가치관은 다른 하위영역과 마찬가지로 연령($F=7.08, p<.001$), 성별($t=-4.13, p<.001$), 교직경력($F=4.56, p<.01$), 전공자격($t=-4.23, p<.001$)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또한 출생순위에 따라 맏이가 막내에 비해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김윤(198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하위영역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요약하면, 성별과 전공자격은 모든 하위영역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고 연령과 교직경력은 부양 및 효의식을 제외한 하위영역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 여성인 경우, 가정과 자격을 소지한 경우, 연령이 낮은 경우, 교직경력이 짧은 경우에 더 근대적인 가치관의 경향을 보였다. 남교사 또는 기타자격 소지 교사가 여교사 또는 가정과 자격 소지교사에 비해 가족가치관 전체와 모든 하위영역에서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남교사 혹은 가정과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교사가 가정을 지도할 경우,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의 재조명과 재정립을 요구하는 가족가치관 교육에 부정적인 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다른 하위영역보다 성역할관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성평등교육이 가정교과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청소년기에 바람직한 성역할관을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남교사 혹은 가정과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교사가 가정교과를 지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하게 한다.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기술·가정」교과의 영역별 분리지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

는 현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밖에 결혼관은 기혼인 경우나 기독교인 경우, 부양 및 효의식은 미혼인 경우, 가족주의가치관은 장남인 경우가 각각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가정교과교사의 가족가치관도 일반적인 사회화 과정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정 교과에서 가족가치관에 관한 교육을 할 때 교사의 개인적 변인에 의한 가치관의 차이가 교육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해 우려되는 점이 없지 않다.

2. 중학교 가정교과교사의 가족생활 영역 목표 요구도

1) 세 행동체계별 가족생활 영역 목표의 요구

세 행동체계별 요구도를 살펴보면,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해방적 행동체계의 목표(3.28)이고, 그 다음이 기술적 행동체계(2.52), 해석적 행동체계의 목표(2.51)의 순이다. 해방적 행동체계의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가족생활 영역의 지도를 통해 가정 활에서 일어나는 실천 문제에 대하여 가치 판단을 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으나 이것이 현재 교육과정 속에서 성취되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음을 의미한다.

이는 식생활 영역을 대상으로 세 행동체계별 내용 요구도를 조사한 유난숙(199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세 가지 행동체계에 따른 가정교과 목표 중 해방적 행동의 요구도가 제일 높게 나타난 선행 연구(채정현, 1996; 유화림, 1996)의 결과와도 같다.

가정교과교육은 기술 과학적인 방법과 지식을 습득하는 데서 탈피하여 실천적인 내용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유태명(1992)과 김항아·유태명(1995)의 연구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축적된 지식이나 개념을 이해하는 해석적 행동체계나 실험·실증주의에 입각한 기술적 행동체계 뿐만 아니라 가족의 행동을 도덕적으로 정당한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해방적 행동체계에 대한 목표도 강조해서 다루어야 한다. 가정교과의 여러 분야 중

특히 가족생활 영역의 교육은 가족학적·발달 심리적 지식에서 벗어나서 가정과 사회의 왜곡된 믿음까지도 비판적으로 생각하여 가치를 판단하고 행동을 정당화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장혜경, 1994)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세 행동체계별 가족생활 영역 목표 요구도

중학교 가정과교사의 가족생활 영역 목표 요구도가

일반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령, 성별, 교직경력, 전공자격, 학력, 결혼여부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표 3 참조). 먼저 기술적 행동체계의 목표 요구도를 보면, 앞에서 말한 일반적 특성의 어떠한 변인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해석적 행동체계의 목표 요구도는 전공자격($t=2.49$, $p<.05$)에 따른 차이만 나타났는데, 가정과 자격을 소지한 교사가 기술을 포함한 기타 자격을 소지한 교사에 비해 해석적 행동의 목표를 더 많이 요구하고 있었다.

해방적 행동체계의 목표 요구도는 연령($F=5.85$,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세 행동체계별 가족생활 영역 목표 요구도 (N = 312)

구 분		N	기술적 행동체계 목표 요구도		해석적 행동체계 목표 요구도		해방적 행동체계 목표 요구도		
			M	SD	M	SD	M	SD	
연령	35세 미만	56	2.68	2.64	2.88	2.51	4.37	a	2.83
	35 - 39세	89	2.83	3.05	2.81	2.47	3.48	ab	2.72
	40 - 44세	95	3.32	1.83	2.34	2.31	2.91	b	2.32
	45세 이상	72	2.27	1.95	2.07	2.22	2.68	b	2.18
	F			1.06		1.93		5.85**	
성별	여	294	2.52	2.44	2.54	2.39	3.36		2.58
	남	18	2.44	1.89	2.01	2.37	1.91		1.79
	t			.14		.92		3.25**	
교직 경력	10년 미만	66	2.37	2.56	2.56	2.43	3.88		2.84
	10-15년	73	2.84	3.06	2.69	2.40	3.38		2.65
	15-20	80	2.57	2.20	2.79	2.73	3.27		2.65
	20년 이상	93	2.33	1.85	2.09	1.97	2.78		2.12
	F			.71		1.46		2.43	
전공 자격	가정	291	2.57	2.44	2.60	2.39	3.43		2.54
	기타	21	1.84	1.81	1.27	2.04	1.20		1.93
	t			1.35		2.49*		5.00***	
학력	대졸	218	2.52	2.21	2.47	2.50	3.19		2.59
	대학원재	41	2.72	2.43	2.90	2.38	4.07		2.54
	대학원졸	53	2.37	3.14	2.36	1.88	3.06		2.39
	F			.24		.67		2.31	
결혼 여부	기혼	276	2.53	2.46	2.52	2.47	3.22		2.64
	미혼	36	2.41	2.00	2.45	1.62	3.72		1.87
	t			3.00		4.18		7.33**	

*** $p<.001$ ** $p<.01$ * $p<.05$

$p<.01$), 성별($t=3.25, p<.01$), 전공자격($t=5.00, p<.001$), 결혼여부($t=7.33, p<.01$)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35세 미만인 교사가 40세 이상인 교사에 비해 해방적 행동의 목표를 더 많이 요구하였다. 연령이 높은 교사는 실용·실증적 관점에서 기술적 행동을 중요시하던 과거에 교사 교육을 받았고, 그러한 관점에서의 가족생활 교육과정을 지도해 왔기 때문에 해방적 행동체계의 목표를 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혼인 교사가 기혼인 교사보다 해방적 행동의 목표를 더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혼인 교사의 연령이 대체로 낮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여교사가 남교사보다, 가정과목 자격을 소지한 교사가 기타 과목 자격을 소지한 교사보다 해방적 행동체계의 목표를 더 많이 요구하였다. 타과목 자격을 소지한 교사가 가정과 자격을 소지한 교사에 비해 해석적 행동체계와 해방적 행동체계의 목표를 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타과목 자격 소지 교사가 가정교과의 실천비판적인 본질에 관해 가정과교사에 비해 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01학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는 7차 교육과정에서 전공별로 영역을 분담해서 가르치기보다 한 교사가 「기술·가정」을 전담하여 지도하는 현실(손순옥, 2001)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교육 현장에서 가정교과를 지도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3. 가족가치관과 세 행동체계별 가족생활 영역 목표의 요구도와 의 관계

〈표 4〉에서 나타났듯이, 가족가치관 전체의 평균점수

는 기술적 행동체계와 해석적 행동체계의 목표 요구도와는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해방적 행동체계의 목표 요구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r=-.29, p<.001$)이 있었다. 즉 가족가치관이 근대적일수록 해방적 행동체계의 목표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가치관의 각 하위영역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가족가치관의 하위영역인 결혼관, 성역할관, 자녀관, 부양 및 효의식, 가족주의 가치관의 평균점수 역시 기술적 행동체계와 해방적 행동체계의 요구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없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더라도 상관계수의 값이 .20 이하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상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김정환, 2000). 그러나 해방적 행동체계는 가족가치관의 모든 하위영역인 결혼관($r=-.23, p<.001$), 성역할관($r=-.21, p<.001$), 자녀관($r=-.20, p<.001$), 부양 및 효의식($r=-.22, p<.001$), 가족주의 가치관($r=-.20, p<.001$)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즉 결혼관, 성역할관, 자녀관, 부양 및 효의식, 가족주의 가치관이 근대적일수록 해방적 행동 체계와 관련된 목표를 더 많이 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교사의 가족에 대한 가치관과 가족생활 영역에서 추구하는 교육 목표 사이에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버마스(1973)는 세 가지 인식관심이 인간의 행동을 유도하며 이 세 가지 인식관심에 따라 추구하고자하는 학문의 목표가 달라짐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해방적 인식관심을 가진 가정과교사는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로부터 자유로와 되고자 하며 가정교과의 가족생활 영역을 지도하는 데 있어

〈표 4〉 가족가치관과 가족생활 영역 목표 요구도와 의 상관관계

	가족 가치관	결혼관	성 역할관	자녀관	부양 및 효의식	가족 주의 가치관
기술적 행동 목표 요구도	-.06	-.07	.00	-.05	-.04	-.03
해석적 행동 목표 요구도	-.15 ***	-.11	-.15 **	-.12 *	-.12 *	-.09
해방적 행동 목표 요구도	-.29 ***	-.23 ***	-.21 ***	-.20 ***	-.22 ***	-.20 ***

*** $p<.001$ ** $p<.01$ * $p<.05$

서도 해방적 행동체계의 목표가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 결과에 대한 결론과 이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과교사의 가족가치관은 비교적 근대적이며, 결혼관, 성역할관, 자녀관, 부양 및 효의식, 가족주의 가치관의 모든 하위영역에서도 근대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었다. 가족가치관 변화와 교육의 기본 방향이 가부장적 요소를 극복하고 가족원의 평등과 양제적인 방향을 지향해야 함을 고려하면, 가정과교사의 가족가치관이 근대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가정과교육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하위 영역별, 세부 영역별, 항목별 가치관은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 가족가치관의 동질화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더욱이 남녀에 대한 이중적인 가치관 등 가족가치관의 부정적 편향성이 가정과교사에게도 나타나, 이러한 가치관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가족가치관을 형성하는 일이 필요하다.

둘째, 가정과교사는 세 행동체계별 가족생활 영역 목표에 해방적 행동체계 목표를 가장 요구하였으며, 다음으로 기술적 행동체계 목표, 해석적 행동체계 목표 순으로 요구하였다.

최근, 가정과교육의 방향이 실천 비판적인 패러다임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교육의 목표로 해방적 행동을 기르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가족생활 영역의 교육과정에서 가정과교사가 해방적 행동체계의 목표를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다는 결과는 이러한 가정과교육의 변화를 지지해준다. 가정과교과가 실천비판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가정과교사는 학생들이 가정생활에서의 세 행동체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을 돕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런데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가정과교사들은 현재의 가족생활 교육과정을 통해 기술적, 해석적 행동체계의 목표에 비해 해방적 행동체계의 목표가 더 적게 성취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족생

활 교육과정은 해방적 행동체계 목표의 성취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먼저 가정과교육과정 차원에서 해방적 행동에 관한 목표가 반영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잘 구성된 교육과정이라 하더라도 교사가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거나 실행하지 않는다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가정과교사들이 가정교과의 실천 비판적 성격과 상대적으로 소홀해 왔던 해방적 행동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셋째, 가족가치관과 가족생활 영역 목표 요구도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기술적, 해석적 행동체계의 목표 요구도와와는 상관이 거의 없었으나, 해방적 행동체계의 목표 요구도는 가족가치관이 근대적일수록 높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결혼관, 성역할관, 자녀관, 부양 및 효의식, 가족주의가치관 등 가족가치관 전 하위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근대적 가족가치관을 가진 교사일수록 해방적 행동체계의 목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는 결과는, 전통적이고 고정된 시각에서 가족을 바라보는 교사보다는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교사가 실천 비판적인 관점에서의 가족생활 교육과정에서 강조되는 해방적 행동 목표의 필요성을 더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그러한 교육과정을 실현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생활 영역의 교육을 통해 현대 사회의 가족에서 일어나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기술적, 해석적 행동체계 뿐만 아니라 해방적 행동체계를 길러 주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가정과교사가 먼저 해방적 행동을 통한 도덕적이고 정당한 가족가치관을 지녀야 한다.

넷째, 가정과교사의 가족가치관은 남교사보다 여교사가, 타과목 자격을 소지한 교사보다 가정과목 자격을 소지한 교사가, 연령이 높은 교사보다 낮은 교사가, 교직경력 많은 교사보다 적은 교사가 더 근대적이었다.

또한, 가족생활 영역 목표에 대한 요구도에 있어서도 여교사, 가정과목 자격을 소지한 교사, 연령이 낮은 교사, 교직경력이 적은 교사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해방적 행동체계의 목표를 더 많이 요구하였다.

6차 교육과정부터 시수가 대폭적으로 감소되어 가정

전공의 신규 교사 임용이 매우 적으며 7차 교육과정에서 기술교과와 한 과목으로 병합됨에 따라 기술관련 자격을 소지한 교사가 가정 영역을 함께 지도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전통적 가족가치관을 가지고 있거나, 해방적 행동체계 목표의 필요를 덜 인식하고 있는 교사가 가족 생활 영역을 지도할 확률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는 가정교과가 해방적 행동을 강조하는 실천비판 교과로서 교육 현장에서 실현되는데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상의 연구 결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가정교과가 실천 비판적인 교과라는 본질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 가족생활 교육 과정에 해방적 행동에 대한 목표를 강조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면 해방적 행동을 강조하는 실천비판 교육과정 관점이 가정과교사에게 선호되고 있다. 그에 따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가정과교육이 종래의 기술적 관점을 강조하던 것에서 점차 벗어나 실천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적인 교과서의 구성은 집필진에 따라 아직도 인간발달과 가족학적 지식이나 실용적인 방법을 습득하는 것을 위주로 하여 구성된 경우가 많다. 이는 가정교육 전문가들과 개발자들 간에 교과서의 본질과 성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가정학자 및 가정과교육 전문가, 교육과정 및 자료개발자들 사이에 가정교과서의 본질을 실천비판 교과로 인식하는 데 대한 합의와 그에 따른 교육과정 재구성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가족생활 교육과정에서도 가족뿐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자신의 발달과 가족생활을 보는 관점을 기를 수 있는 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교육 과정이 교사교육 및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등의 목표와 내용 수준에서까지 해방적 행동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정과교사 교육과 재교육 과정을 통해서 성숙된 가족가치관과 가족에 대한 해방적 인식관심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가정생활을 지속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려갈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성숙하고 바람직한 가

족가치관을 형성하게 하려면, 먼저 교사가 가족에 관한 가치관이 이데올로기화 되어 있음을 의식하고 이에 대한 깊은 반성과 비판을 통해 가족에 관한 성숙된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가족을 바라보는 전반적인 시각에서 해방적 관점을 기를 수 있도록 가족과 관련된 교사 교육 과정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이는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뿐만 아니라 해방적 행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가치관이 근대적일수록 해방적 행동 목표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 결과에서 가정과교사는 전체적으로 근대적인 가족가치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과 교직경력에 많은 교사는 덜 근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가정학과 가정교육학에서 가족에 대한 해방적 관점에 대한 합의를 거쳐, 이것이 교사교육과 재교육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근대적인 가족가치관을 가지도록 강요하는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고정된 가치관을 비판하고 자유롭게 형성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기술·가정」 교과 지도 시에 기술과 가정 영역을 분리하여 가정과교사가 가족생활 영역을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타 과목 전공 교사가 지도하는 경우에는 사전 교육을 통해 가정과교육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뿐 아니라, 가정학의 철학과 본질에 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성별과 전공자격에 따라 남교사이거나 비전공 교사인 경우에는 가정과교사에 비해 전통적 가족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해석적 행동과 의사소통적 행동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았다. 따라서 이런 교사가 가족생활 영역을 지도할 경우에는 가정과교육의 본질을 충분히 구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7차 교육과정에서 기술과 가정이 한 과목으로 병합이 되었다더라도 영역별로 분리하여 가족생활 영역은 가정전공 교사가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의 현실적인 여건 상 가정과 교사가 가족생활 영역을 지도하는 것이 힘들 경우에는 충분한 연수를 거쳐야 하는데, 이 때 가정과교육 및 가족생활 영역에 있어서의 세 행동체계, 특히 해방적 행동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전통적 가치관을 어느 정도 수용 혹은 거부하는가에 대한 동의 정도를 알아보았을 뿐, 진정한 의미에서의 해방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가치관의 이데올로기성에 대한 비판의식을 조사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방법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가정교사가 가족이데올로기를 비롯하여 가족을 구속하는 여러 국면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의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교사의 가치관이 요구도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가치관이 교육의 과정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설명을 하기에는 부족하므로 교사의 가치관과 교수 행동 및 학습자의 교육목표 성취와의 관련성에 관하여 알아보는 연구를 통해 교사의 가치관이 교육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가족가치관 외에 실천 비판적 가정과 교육과정 실현에 요구되는 가정교사의 지적·정의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계속 보완된다면,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충분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숙경·고정자(1996). 가정의 심리적 과정환경과 대학생의 가족가치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85-95.
- 김경신(1998). 가족가치관의 세대별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10), 145-159.
- 김규원(1995). 가족개념의 인식과 가치관. 한국가족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
- 김송애(1991). 가족주의 가치관과 노부모 부양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 윤(1983).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의식 및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일명(1989). 기성세대와 대학생의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 비교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자·황응연(1974). 한국대학생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서강대 사회문제연구소.
- 김태길(1986). 소설에 나타난 한국인의 가치관. 서울: 문음사.
- 김형아·유태명(1995). 우리나라 가정학의 당면문제점과 그 역사적·철학적 배경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1), 1-18.
- 문소정(1995). 가족이데올로기의 변화. 「한국가족문화의 오늘과 내일」.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329-367.
- 박명주·유태명(2001). 중학교 가정교사와 기술과 교사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교육과정 관점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1), 161-174.
- 박태은(1983). 도시주부의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인(1990). 한국가족의 변화와 가족가치관 「가정학 연구의 최신정보Ⅲ」. 대한가정학회(편). 서울: 교문사.
- 신수진(1999).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족주의 전통.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1), 165-192.
- 안용규(1994). 중등학교 체육과 목표비교를 통한 체육교육의 발전방향 연구.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명숙(1996). 예비부모세대의 결혼관과 자녀관 그리고 성역할에 관한 연구: 대전지역의 남·녀 대학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4(2), 167-181.
- 육선화 (1989). 한국가족의 변화와 가족가치관 가정학 연구의 최신정보Ⅲ. 대한가정학회편. 서울: 교문사.
- 육선화 외(1998). 가족/친족 구조의 해체와 재구성 I: 서울시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1), 157-183.
- 유계숙·유영주(2002). 서울시민의 가족개념 인식 및 가치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0(5), 79-94.
- 유난숙(1997). 세 가지 행동체계에 따른 중·고등학교 가정교과식생활 내용에 대한 교사의 요구 조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영주 외(2000). 가족가치관과 가족의 가치관. 「가족관계학」. 서울: 교문사.
- 유태명(1992). 교육과정의 국제적 비교: 가정교과교육 방향의 재

- 조명을 위한 가정학철학 정립의 중대성 「92년도 제 4차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가정교육학회, 43-59.
- 유태명 외(2002).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한 실과·기술·가정과 의 교육목표와 내용기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유화림(1996). 중학교 가정과교육목표의 필요도에 대한 인식.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숙(1993). 유아·가정교육의 실상과 방향. *교육학연구*, 31(4), 271-288.
- 이동원(1987). 가족가치관에 관한 조사 연구. *이화여대논집*, 52, 229-256.
- 이미숙(1997).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관련요인 연구 : 가족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카톨릭대 생활과학연구논집* 13, 87-105.
- 이연주(1984). 한국가족의 변화에 관한 일연구. *한국가정관리 학회지*, 2(2), 79-91.
- 이효재 외(1995). 한국가족문화의 오늘과 내일.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 장혜경(1994). Marjorie M. Brown의 가정과 교과과정 모형에 근거한 '인간발달과 가족관계' 영역의 학습지도안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소연(2001). 부모와 미혼 성인자녀의 가족가치관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태훈(2001). 하버마스의 '인식관심설'의 기본 지향. *국민윤리 연구*, 48, 103-120.
- 채정현(1996). 중·고등학교 가정과교육목표에 대한 필요평가. *한국생활과학회지*, 5(1), 89-111.
- _____ (1998). 가정과교육과정.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0(1), 198-207.
- _____ (2001). 가정과 교수·학습방법의 실제. 「중등 정 교사 1급 정교사 연수 자격연수 교재」, 217-240.
- 최영철(1985). 교사의 가치관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재석(1975). *한국가족 연구*. 서울: 민중서관.
- _____ (1994).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현음사.
- 최정란·유태명(1998). 남녀 중학생의 가정교과 교육내용과 관련된 가정생활 행동체계에서의 실천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10), 49-63.
- 한국교육명부(200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한남제(1989). *현대한국가족연구*. 서울: 일지사.
- 한은주·김태현(1994). 가족주의 가치관에 따른 부양만족도와 부양부담도. *한국노년학* 14, 95-116.
- 홍승직(1969). 한국인의 가치관 연구. 한국사회학연구총서, 고려대 아세아문제 연구소.
- Borich, G. D.(1980). A needs assessment model for conducting follow-up studies.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31(3), pp.39-42.
- Brown, M. M.(1980). What is Home Economics Education? Washington D.C.: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 Habermas, J.(1971). Knowledge and Human Interests. Translated by J. Shapiro. Boston: Beacon Press.
- Knight, A. P.(1989). An analysis of Home Economics education and nutrition programs determining their orientation toward the mission of Home Economic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Ph.D Dissertation in the Graduate School of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Lave, J. Root, D(1978). The Lakota needs assessment : Purpose, process and outcomes. (ERIC Reproduction Service No. 169 090). The Ohio State University.
- Ohio Department of Education(1993). Work and Family Life Curriculum Guide. Columbus, Ohio.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가정과교사의 가족가치관과 가족생활 영역 목표의 요구도를 파악하고 이 둘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밝히는 데 있다. 본 연구 자료는 전국에서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와 가족생활 영역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우편을 통한 설문지로 수집되었다. 자료는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백분율, t-test, ANOVA와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과 교사의 가족가치관은 비교적 근대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관, 성역할관, 자녀관, 효 및 부양의식, 가족주의 가치관의 모든 하위영역에서도 근대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었다.

둘째, 가정과 교사의 가족생활 영역 목표에 대한 요구도는 해방적 행동체계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기술적 행동체계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으나 해석적 행동체계와 비슷하였다.

셋째, 가족가치관과 가족생활 영역 목표의 요구도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기술적, 해석적 행동체계의 목표의 요구도는 가족가치관과 상관이 거의 없었으나, 해방적 행동체계의 목표 요구도는 가족가치관이 근대적일수록 높았다.

넷째, 가정과교사의 가족가치관과 가족생활 영역 목표에 대한 요구도에 있어서 여교사, 가정과목 자격 소지 교사, 젊은 교사, 교직경력이 적은 교사가 각각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근대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고 아울러 해방적 행동체계의 목표를 더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볼 때, 가정교과가 실천 비판적인 교과라는 본질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 가족생활 교육 과정에 해방적 행동에 대한 목표를 강조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과교사 교육과 재교육 과정을 통해서 성숙된 가족가치관과 가족에 대한 해방적 인식관심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술·가정」 교과 지도 시에 기술과 가정 영역을 분리하여 가정과교사가 가족생활 영역을 지도하는 것이 실천 비판적 관점에서의 가정과교육의 실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 논문접수일자: 2005년 5월 24일, 논문심사일자: 2005년 6월 10일, 게재확정일자: 2005년 6월 15일